

# 식민지 지식인의 산책길, 그들의 문학

박태원 · 이태준 · 이상이 걸어간 길

현대도시에서 산책할 공간은 많지 않다. 매연과 인파, 긴 신호등과 불편한 지하도 때문에 산책하고 싶은 마음은 저 멀리 달아난다. 하지만 산책이란 바로 현대의 산물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한 30년대 문인의 글에서 산책로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산책을 다룬 대표적인 소설 3편을 통해 오늘날 산책하며 근대문학과 만날 수 있는 여정을 걸어본다.

잡지 《별건곤》 1930년 1월호에 실린 박로아의 〈10년 후 유행〉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부부동반, 애인동반, 동무동반, 동반산보가 대유행이다. 부부나 애인이 아닌 일시적 산보 동무의 남녀 한 쌍이 또한 적지 않다. 연애를 오직 두 사람만의 비밀로 숨기고 남보기 부끄러워하던 것이 이제 와서는 대담하게 표면화한 것이다.” 근대도시의 모습을 갖춰가던 30년대 경성에서 종로의 야시(夜市)나 천변의 카페골목, 명치정의 고본육을 거니는 산책자의 모습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이 산책자는 곧 자조적인 식민지 지식인의 한 모습이다.

## 산보의 달인, 구보 박태원

우리 문학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책자는 바로 구보 박태원이다.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의 실업자 구보의 산책은 박태원의 생각이 있던 다육정, 지금의 영풍문고 맞은편에서 시작한다. 머리가 복잡한 고등실업자 구보의 발걸음은 광고에서 종로 네거리를 지나 화신상회에게서 이른다.

구보가 첫 행선지로 잠은 종로네거리에서 종로3가까지는 개화기 때부터 야시(夜市)가 유명해 이해조의 신소설 〈옥호기연〉(1910)에도 갖가지 등을 달고 손님을 끄는 장면이 상세히 묘사됐다.

“둥굴둥굴 슈박등 이모저모 마늘등 북등 샤방등 붉긋 불긋누릇 진실로 천하장관이라(…) 어린것을 잇쓸어 구경 호는사람이 각씩 산갖치 오기도 흥고 가기도 흥야 골목골목이 발을 밀어 되들 틈이 없다.”

이 소설은 중부골(종로 2가에서 4가 사이)에 사는 류통정과 그 딸 금주가 초과일 야시 구경 나섰다가 종각에서 파조고, 피마병골을 거쳐 철물고(인사동 초입) 아래 청인들 시장 앞까지 미행한 건달들에게 납치된다는 얘기를 담았다. 백화점 등 신식건물이 생기기 전까지 서울에서 유일한 볼거리였던 종로 야시에 대해서는 이광수의 《무정》에도 “종로 야시에는 ‘짜구러’ 하는 물건 파는 소리와 길다란 칼을 내어두르며 약광고하는 소리도



30년대 후반, 어느날의 오후 2시. '작품모집' 이라고 써어진 포스터로 미뤄 김소운이 다니던 출판사 편집실에서. 왼쪽부터 이상·박태원·김소운

들린다”는 등 변화한 도회의 상징으로 나와 일본인 중심의 청계천 남쪽 상권이 개발되기 전까지 유일한 구경거리였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구보 때만 해도 이미 야시에는 관심이 덜해 화신상회를 둘러보곤 전차에 뛰어올라 동대문까지 간다. 동대문에서 가까운 종로 6가 117번지는 시인 김수영의 생가터이기도 하다. 구보는 그 곳에서 다시 혼련원, 저동을 지나 조선은행(한국은행) 앞에서 내려 장곡천정(소공동)의 한 다방(아마도 낙랑팔라)에 들어간다. 식민지 룬펜들이 모인 다방에서 다시 나온 구보는 발길 닿는 대로 남대문을 지나 경성역까지 간다. 경성역 그릴에서 칼 피스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조선은행 앞 다방으로 돌아와 김기림을 만나 《울리시즈》 얘기를 한 뒤 종로네거리, 종로경찰서, 이상(李箱)의 다방 ‘제비’, 동아일보 앞 황톳마루, 다시 이상의 다방을 거쳐 이번에는 이상과 함께 경성우체국, 황금정(을지로), 종로, 낙원정(낙원동), 광고, 종로네거리를 돌아 집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박태원의 행로는 ‘고현학’, 즉 현대에 대한 탐구라는 뜻의 ‘모데로노로지오’로 압축된다.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근대성과 일상성》을 쓴 조영복씨에 따르면 구보의 산책이 의미를 띠는 까닭은 “산책자는 근대성을 근대에 대한 단순한 관계양태로서가 아니라 자기자신과의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 양식으로 파악하면서 근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이다. 즉 구보의 행로는 근대를 감지하려는 의도된 산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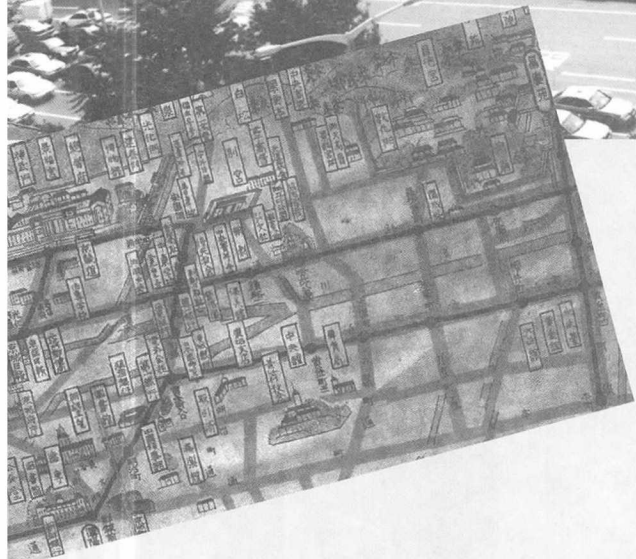
## 식민지 지식인의 위안거리, 시내 만보

구보 못지 않게 산책을 좋아한 사람은 같은 구인회 소속의 이태준이다. 아내와 서대문역 전차정류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행촌동으로 산책하자고 하자 아내는 ‘거긴 동무들이 산보 잘 오는’ 곳이라며 거절한다. 대신에 어릴 때 소풍 가던 기억을 되살려 서대문형무소를 지나 무학재를 넘어 세검정까지 갔다가 세속화된 모습에 그만 실망하고 만다. 나중에 성북동으로



일제시대, 일본인 상업지구가 자리잡았던 명동. 식민지 지식인들이 주로 들린 곳은 조선은행 위 '낙랑팔라'와 일본 최신간이 들어오던 본정의 '대판옥서점' 등이다.(위)

총 인구 38만. 지금의 중심가만이 서울의 전부였던 1930년대 속속 들어서는 양식 건물은 도시를 배회하는 모더니스트를 낳았다.(왼쪽)



이사갔을 때, 아내는 '왜 그때 이렇게 산보하기 좋은 데를 몰랐느냐'며 힐난하기도 했다.

이태준의 산책을 다룬 소설 <장마>는 성북동 248번지 이태준의 집에서 시작한다. 그 곳에서는 만해 한용운이 기거하던 심우장과 간송 전형필의 간송미술관도 가깝다. <장마>의 주인공은 간송미술관 앞 포도원까지 버스가 들어오지 않음을 한탄하며 보성고등학교 고갯길을 넘어 큰길로 나와 총독부행 버스를 잡아타고 안국동까지 간다. 지금의 공간 사옥 뒤편 원서동 134-8번지에는 시인 박인환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그 곳에서 전차를 갈아타고 조선중앙일보사에 들른 그는 장곡천정 낙랑팔라에 갔다가 진고개(충무로)로 들어서 대판옥서점에서 책을 구경하고 본정그릴에서 맥주를 한잔 마신다. 그리고는 다시 낙랑팔라 뒤를 돌아 중국인 거리의 천증원에서 아내 젖이 잘 나오도록 '도야지죽'을 사서 성북동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 소설의 줄거리다. 이 소설의 도입부에는 수염을 깎으려던 주인공이 직장도 없이 낙랑팔라에 죽치고 앉아 있을 이상과 구보를 떠올리는 장면이 나온다. 그들에게 도시, 산책, 카페란 탈출구 없는 식민지 지식인의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이상의 행로 역시 그의 문학을 생각하며 따라 걸을만한 산책로다. 봉곡골(적선동)에서 태어난 그는 통인동 154번지의 백부집에서 성장기를 보내는데, 이 곳은 현재 경복궁에서 자하문터널로 가는 길 왼편으로 보이는 한빛은행 뒷편이다. 그곳에서 그가 근무하던 총독부는 지척간이니 출퇴근은 산보 축에도 속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누상동 9번지는 연희전문학교 재학시절 윤동주가 하숙하던 곳이고 월궁동은 염상섭의 출생지, 호적 상 주소로는 행촌동 36-4번지지만 지금은 사직터널 지나

도로가 됐다. 이 근처는 또 이광수의 소설 <광화사>의 배경이기도 해 이광수는 인왕산에서 경성을 내려다보는 주인공의 입을 빌어 '오늘날의 한산보객의 자리에서 보자면 서울은 세계에 유래가 없는 미도(美都)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상은 종로 네거리(제일은행 본점 뒤)에 '제비'를 차리면서 관철동 33번지(코아아트홀 인근)에서 금홍과 동거한다. 이 시절의 경험은 소설 <날개>로 남았다. <날개>의 주인공은 밤마다 정처없이 외출한다. 소설에 지명이 거론되는 곳은 경성역으로 주인공은 그 곳에서 커피를 마신다. 종로 네거리에서 경성역까지의 행로는 아마 구보의 행로와 동일할 것이다. 그 다음 외출지는 벤치가 있는 가까운 산이다. 그 곳에서 다시 집에 들렀다가 여러 번 차에 치일 뻔하면서 경성역 그릴에 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어찌어찌해서 미쓰꼬시(신세계) 옥상에 올라가게 된다는 게 <날개>의 행로다.

### 그들의 산책은 곧 그들의 글쓰기

30년대의 대유행 산보는 교양의 하나로 시작됐다. 전영택의 소설 <운명>의 여주인공 H가 동경으로 떠난 동준을 그리며 보낸 편지에서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 중 하나로 '산보'를 거론한 것이나 김기림이 수필 <산보로의 나폴레옹>에서 태평로나 조선호텔 앞의 산보로에 서양개를 데리고 다니는 유행이 불란서에서 직수입된 게 아니라 동경이나 상해에서 '불려온' 것이라 비판하는 것은 산책이 교양인의 한 조건임을 보여준다.

30년대 실업지식인이 등장하면서 교양취미인 산보는 목적 잃은 만보로 그 격이 떨어지지만, 주옥같은 모더니즘 문학을 낳은 모태가 됐다. 자신과 외부에 비판적인 시선을 던지며 걷는 그들의 산책이란 곧 글쓰기였다. 우울하고 정신분열증적인 증세를 보이던 이들 식민지 작가들이 걸어간 길을 상상하며 따라 걷는 일이 곧 그들의 문학을 되새기는 일이 되는 까닭은 이때문이다.

— 김연수 기자